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오늘과 내일

한 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률 제3727호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그 설립 목적은 각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대학간에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케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대교협은 창립 13주년을 맞았으며 대학교육의 발전과 160개 회원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 경위를 감안할 때 대교협의 설립 배경과 동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중간적 조정기관이 없는 각 대학과 정부 간의 직접행정에서 오는 갖가지 불편을 제거하고, 특히 공통적인 사업에 관한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정부측에서 먼저 제안되었다. 둘째는 학원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학교육의 자치와 자율에 관한 오랜 동안의 회구가 시험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셋째는 제5공화국 이래 명목상으로나마 표방된 교육혁신과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정치적 이념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개혁에 대한 대학가의 반발과 혼란을 수습하는 중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동기는 대학교육의 비대화나 각 대학에서의 자율역량의 신장과 다양해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종래의 교육 전반에 관한 정부의 감독이나 관여 및 그 지도에 한계성을 실감한 데서 오는 필연적 귀결로 정리하여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이나 상황에서 출범한 대교협은 정부의 지원과 각 회원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 대교협은 회원대학의 증가와 교육부의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그 기능과 업무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현안 문제가 폭증하게 되었다.

현안 문제로는 대학평가인정제 사업, 대학교육 세미나 사업, 대학교육정책 연구사업, 대학 교수·직원 연수 개발사업, 국제교류 사업, 사립대학 학생기숙사 시설확충 및 융자금 관리 수탁사업 이외에도 금년부터는 대학입시 관리업무 지원사업이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던 입시 지원업무를 대학 자율화 시책의 일환으로 이관받아 대학



충남대 총장
대교협 회장

정 덕 기

간의 상호 자율적 통제를 통해 바람직한 대학입시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지난 93년 이후 거론되어 왔던 대학회관 건립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복합적인 지원센터로서 대학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13년간 대교협은 대학간 협의체라는 형태로 출발하여 지속적인 대학간 협의와 대학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이 중 상당한 부분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은 그 특성상 단일의 협의체로 결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개별대학마다 독자적인 설립이념과 건학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간,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간, 기존 대학과 신설대학 간, 그리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 간에 각기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사안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이 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회원 대학의 결속을 이루어냄으로써 많은 일을 해결해 온 것은 크나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이 회원이 되어 그 대표자인 총·학장들의 모임으로서 그 위상이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 못지 않게 높은 기관이다. 따라서 협의회가 업무를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회원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각 회원 대학들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회원 대학들의 요구와 필요를 능동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대학간의 협의 조정과 대변은 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업무일 것이다.

끝으로 대교협은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안목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날로 가열되고 있는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올바른 위상과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구해 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협의회가 명실공히 대학사회를 대변하고 그 권익을 신장시키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력 투구함으로써 회원 대학들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 가는 조정 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